

# 해운대구 일자리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2. 4. 4.(월) 15:00~16:00
- 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 장 소 : 구청 3층 중회의실
- 내 용 : 2022년 해운대구 일자리창출 추진계획 보고  
일자리창출 발전방안에 대한 자문 및 토론
- 참 석 : 일자리위원회 위원 15명 중 10명 참석

□ 진 행 : 개회, 위원 소개 ⇨ 인사말씀 ⇨ 2022년 해운대구 일자리창출 추진계획 보고 ⇨ 일자리창출 발전방안에 대한 자문 및 토론 ⇨ 폐회

□ 주요내용(발언요지)

발언자	발 언 내 용
구청장 (위원장)	○ 해운대구 일자리 창출과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 과장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조례상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떨지?
○○○	○ 동의함, 5명을 늘리면서 청년들도 위원회에 참여할 있으면 좋겠음
일자리경제 과장	○ 현재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구청장 (위원장)	○ 인원을 추가하는 것은 좋으나, 조례개정시 청년층으로 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 청년정책위원회에서도 일자리 관련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는지?
일자리경제 과장	○ 주로 일자리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예를 들면 석대산단 기업체 대표 등이 포함되는것도 좋다고 생각함
김성군	○ 괜찮다고 생각함. 개정안이 발의되면, 적극 검토하겠음
○○○	○ 위원수를 늘리더라도 참석을 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음
○○○	○ 회의자료 검토 결과, 일자리사업이 상당히 많음. 추진에 노고가 많으심. 학교에 있다보니 청년위주의 문제점 인식을 많이 하고 있음. 청년일자리가 청년정책위원회에 많이 논의 되고 있다니, 다행이지만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이 일자리위원회와 원활하게 소통되어 반영 될 수 있기를 바램. 청년정책위원회 대표가 여기에 참석을 한다면 수월하게 반영이 될거라 생각함. 2022년 추진방향에 청년

	<p>들의 지역정착유도를 위한 취창업지원을 하겠다고 되어있음. 공학도는 일자리 많으나 인문학계열 학생들의 일자리는 없어 역외 유출이 많음. 인문학 전공자들에게 필요한 교육 및 기업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음. 행정체험연수도 좋으나 인문학 전공자들이 기업에 직접적으로 가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해운대구에서 선제적으로 추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음.</p>
구청장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 다른 다양한 의견 말씀해주시길 바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운대에 더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의회의 예산심의 전이나, 정책결정이전 등 수요발굴 시점에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면 좋겠음. 사업확정 후 위원회를 개최하면 의견을 내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임. 지금 논의 하면 차년도나 추경을 통해 반영할 수밖에 없어 아쉬움</li> <li>○ 위원수 확대에 동의함. 특히 수요자인 기업 대표들이 참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함 저희기관에도 다양한 사업이 있어 지자체와 매칭하면 효과적 사업이 많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수 확대 찬성. 우리 센터도 입주기업을 통해 매년 40~50명 고용창출이 이루어 지고 있음.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부분도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람</li> </ul>
일자리경제 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관련 예산이 타구는 평균 0.5% 인데, 우리는 1.6%로 많음. 청년일자리 사업 면접수당, 컨설팅 등 직접직 청년지원 예산 많음. 수요발굴 가능 시점에 위원회 개최 좋은 의견이라 생각함.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고 특히, 이번 추경에 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바로 사업으로 연결 할 수 있는 풀예산 3억이 반영되어 있음. 좋은 의견 주시면 2회 추경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음.</li> </ul>
구청장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매년 1%가까이 청년관련 예산을 증액할 계획임. 한 5년 이내에 전체예산의 5% 범위가 되도록 확장할 계획임. 통상적으로 노위원장 말씀럼 인문학 쪽까지는 힘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음. 기업체험도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함. 청년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되어있다보니해운대에서 특화하고자 하는 것은 청년크리에이터, 1인미디어 쪽으로 집중하여 공간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두 번째로는 사회적경제를 기업화 하기 위해 청년대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li> <li>○ 현재 디자인진흥원과 진행하고 있는 디자인분야 청년채용기업 인건비 지원도 계속할 것이며, 이번에 특히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반송에 청년 예술가들이 입주하여 활동할 수 있는 창작공방을 만들었음. 레지던스 형태로 운영하여, 작품활동은 물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임. 청년예술가들의 작품은 이번에 준공한 해운대 아틀리에 칙칙폭폭에서 전시하고 전시기간이 끝나면 옥션을 통해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것이며, 입주예술가들에게는 최소한의 급여도 지원해서 상주하며 자유롭게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입과 아웃풋이 명확한 것 같음. 해운대는 특성화 되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쪽 확장하면 청년에게 많은 도움 될 듯. 특화한다면 좋을것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션을 통해서 네임벨류가 올라갈 수 가 있겠지만, 각종 페어와 연계해서 청년 예술 코너를 만들어서 매출도 많이 올릴 수 있을 것임.</li> </ul>
일자리경제 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까지는 단순 교육과 취창업에 함몰되어 책임시스템이 부족했던 것 같음. 앞으로 도심형 주거창업복합공간 조성을 검토중임. 그곳에서 숙련이 되면, 우리구 1인창조 비즈니스센터에서 3년간 훈련, 그 이후 조성예정인 한진CY부지 창업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청년을 키우는 등으로 사후관리까지 생각하고 있음</li> <li>○ 또 우리 도시도 문화가 없으면 발전이 어렵다 생각함. 지역공원 등을 활용해 청년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그곳을 방면하면 항상 음악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공간 마련도 필요하다 생각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운대 아틀리에 칙칙푹푹은 전시관 인지?</li> </ul>
구청장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관+경매공간이며,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도 만들어놨음. 청년의 일자리는 숫자의 문제가 아님. 청년들 생각은 멀리 있고 행정은 따라가고 있음. 청년들이 일반사회에 주가 되어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받아들여 행정은 지원의 역할을 해야한다 생각함.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들의 도움이 필요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풀에산을 해리단길-술밭예술마을과 연결해서 서울 인사동과 같은 분위기로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함</li> </ul>
구청장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에서 끌고 가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 해리단길도 행정에서는 이름을 만들어 준 것. 나머지는 주민들이 직접 한 것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영화제 성공한 이유도 행정에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서임. 어느순간 간섭을 하면서 어려워졌고, 한번 상처가 나면 회복이 되지 않음. 뮤지컬 캣츠가 현대자동차 보다 매출 높음. 세계적 크리에이터 한명이 나오면 다양한 수혜가 주민들과 청년들에게 있을것임. 그리고 해운대 미래 센텀2지구에 있다고 생각함. 산단 개발은 부동산 개발이 아님 일자리창출임. 해운대에 옵션이 될 수 있으므로 산단과 연계해 해운대형 일자리 개발이 필요할 것임. 센텀2지구에서 해운대형 일자리가 만들어 내 질 수 있길 바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니콘타워 등의 추진으로 양질의 좋은 일자리 창출하고, 해운대 청년들이 떠나지 않은 해운대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음.</li> </ul>
구청장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늘 참석 및 좋은의견 주셔서 감사함.</li> </ul>